Strategy

산타랠리를 넘어 신년 주도주로... AI의 확산과 성장 수혜주 발굴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산타랠리 이후 성장주로 수급 전이 가능성, 코스닥 아웃퍼폼 계절성 주목
- AI의 상용화 가속화, IT/기술주/성장주로의 모멘텀 확산 전망
- 저평가 성장주를 중심으로 주도주 선점을 위한 옥석 가리기 필요

산타랠리 지속 중이나, 반도체 업종 쏠림 현상의 미확산은 아쉬워

산타랠리는 연말 세금과 결산 이슈로 인한 매도 후 재매수,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으로 연말에 매수 수요가 유입되는 것과, 크리스마스 연휴 소비 증가와 연말 보너스, 새해에 대한 낙관적 투자심리가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계절적 패턴이다.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연초까지, 통상 12월 말 마지막 5거래일과 이듬해 1월 첫 2거래일을 산타랠리 기간으로 일컫는다.

올해의 경우 12월 중순 AI 수익성 우려를 딛고 미국 증시는 대체로 사상 최고치를 높이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았고, KOSPI 역시 4,100선을 탈환했다.

12월 4주 코스피 지수가 2.7% 상승한 데에 비해 코스피를 아웃퍼폼한 업종은 반도체 업종이 유일, 쏠림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전형적인 상승 랠리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다만, 국내 대표 업종인 반도체로의 외국인/기관의 수급 쏠림이 완화될 경우 수익률 키맞추기, 순환매와 함께 타 업종으로도 훈풍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증시에서는 산타랠리 기간 코스닥과 성장주의 아웃퍼폼 뚜렷

2000년대 이후 산타랠리 기간의 상승률 통계는 지수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2000년대 이후 연말 마지막 5 거래일, 이듬해 첫 2거래일의 상승 통계를 집계한 결과 S&P500의 경우 25개년 중 18번 산타랠리가 나타났다. 상승 확률은 72%이며, 해당 기간 평균 수익률은 0.7%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2000년 이후 상승이 나타난 것은 절반을 간신히 넘은 13번에 불과했다. 평균 상승폭도 0.2%에 불과하다. 주목해볼 것은 같은 기간 코스닥의 경우 19번 상승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무려 76%의 상승 확률이며 평균 상승 폭은 1.8%에 달한다. 코스피의 경우 연말 대주주 회피와 배당락 영향이 기간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배당 선진화 정책으로 이러한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것이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한편 코스피 매도대금은 성장주와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말 마지막주와 1월 첫주에 성장주의 아웃퍼폼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올해의 경우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기술 트렌드의 방향성을 확인할 CES, AI의 상용화 방향과 속도 체감

다가오는 1월 6~9일 개최되는 CES 2026 행사를 통해 AI의 발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성장주로의 수급 이동을 가속화할 수 있다. 국내증시의 경우 반도체, 전기/전자, 모빌리티, IT, 바이오 등 기술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성장 스토리가 주가와 주도주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필자는 2026년은 AI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주요 AI 모델들이 경쟁적인 투자와 성장을 이어가면서 AI 모델 API의 가성비와 전성비가 크게 개선되었다. 산업의 병목으로 작용하던 엔비디아 GPU의 병목 또한 개선되는 중이며 국내에도 약 26만장의 GPU가 도입되면서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것이다.

여전히 AI가 글로벌 기술 혁명을 주도하는 가운데 AI의 상업화 방향은 크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Agentic AI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Physical AI로 구조화된다.

Agent AI는 생성형 AI가 실생활로 침투하는 킬러 앱의 등장을 기대한다. 각 산업에 특화된 AI 솔루션과 자율 에이전트들이 선보여질 것으로 예상되며, Physical AI는 로보틱스, 자율주행차량, 온디바이스 AI 등 물리적 기기와 AI의 결합 사례가 빠르게 시장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를 접목한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으로 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시장성이 가시화될 수 있다. CES를 계기로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로보틱스, 모빌리티 산업의 AI 모멘텀 확장 가능성을 전망하며 기존 AI 수혜 업종인 반도체, 전력설비 산업의 펀더멘털 또한 견조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공간 컴퓨팅 등 기술발전 또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포인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또한 AI 도입으로 가장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팬데믹 이후 건강 원격 모니터링, AI영상 판독이 상용화되었으며 앞으로 AI 의료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바이오센서, 의료용 로봇,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기술 등을 유망 투자 산업으로 전망한다.

공간 컴퓨팅은 초기 메타버스 열풍 당시 XR/AR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CES 2026에서는 경량 AR글래스, 산업용 XR 솔루션 등 메타버스의 현실화를 보여주는 제품들이 선보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핀테크, 푸드테크, IoT(사물인터넷), 우주기술, 친환경기술 등이 CES2026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 뽑힌다. CES 이후로도 각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MWC 등 산업/테마별 주요 박람회, 학회, 산업 행사를 통해 소개되는 신기술은 새로운 주도주와 투자포인트를 발굴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투자전략: 2026년 주도주 옥석가리기, 저평가된 성장주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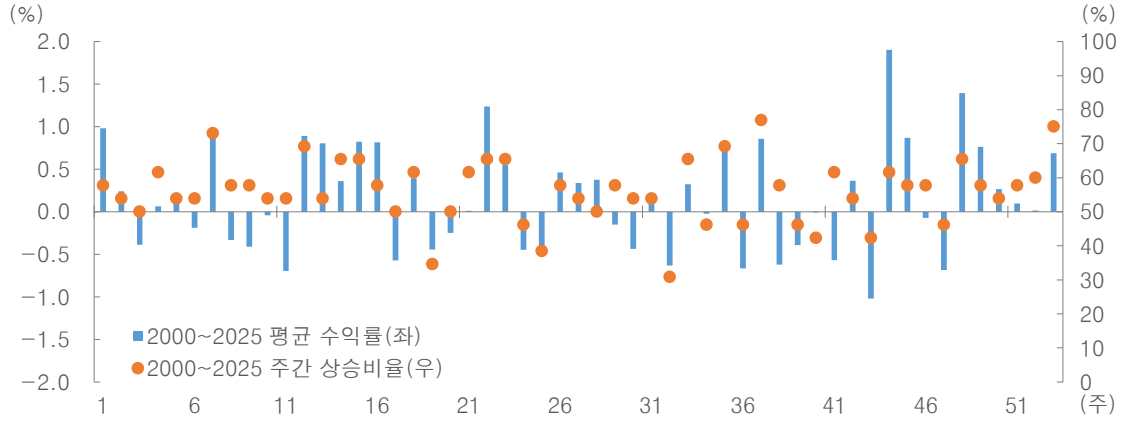
연초 성장주 랠리와 함께 주목할 것은 새해 주도주가 드러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5년 주도주였던 조선/방산/원전 업종의 상승 또한 1월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연초에 신성장 산업·테마에 대한 새해 주도주 내러티브가 강조되기 쉽고, 연말 수익 확정과 윈도우 드레싱 이후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기 때문이다.

KOSPI 12개월 선행 PER 10.2배, 3년 평균 하회로 인해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연초 성장주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2차전지(제조/소재), IT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업종 등은 최근 실적 대비 주가가 부진했던 바 있다.

반도체 업종은 최근 주가상승으로 삼성전자의 사상최고치 경신과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적 전망이 가파르게 성장, 반도체 업종 12개월 선행 P/E는 8.4배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인 상황. 2026년에도 AI산업을 중심으로 주도업종으로써의 위치를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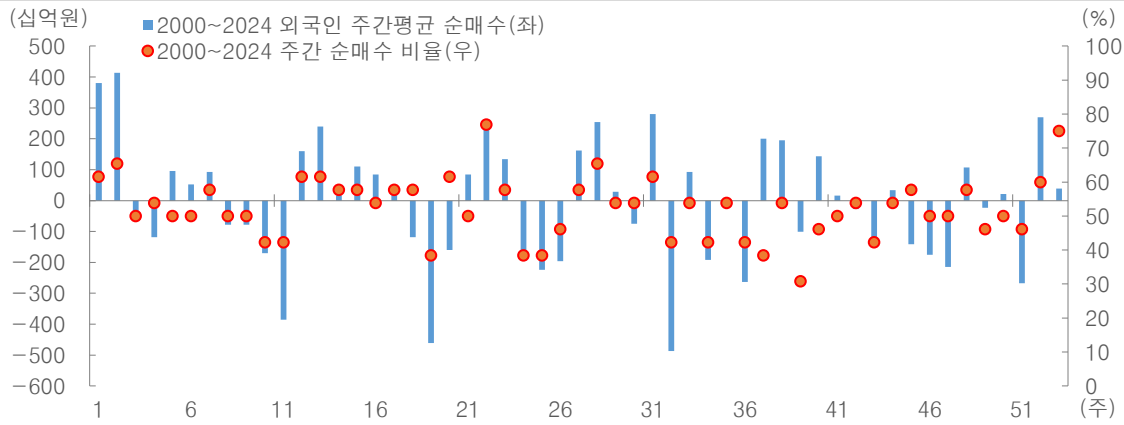
반도체, 2차전지 업종은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매집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인터넷, IT하드웨어 업종에서 연초 성장주 모멘텀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비중 확대를 제안한다. 정책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코스닥과 중소형주에서 옥석 가리기를 더한다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림 1. 산타랠리 기간인 마지막주 상승확률 75%, 첫 주 상승확률은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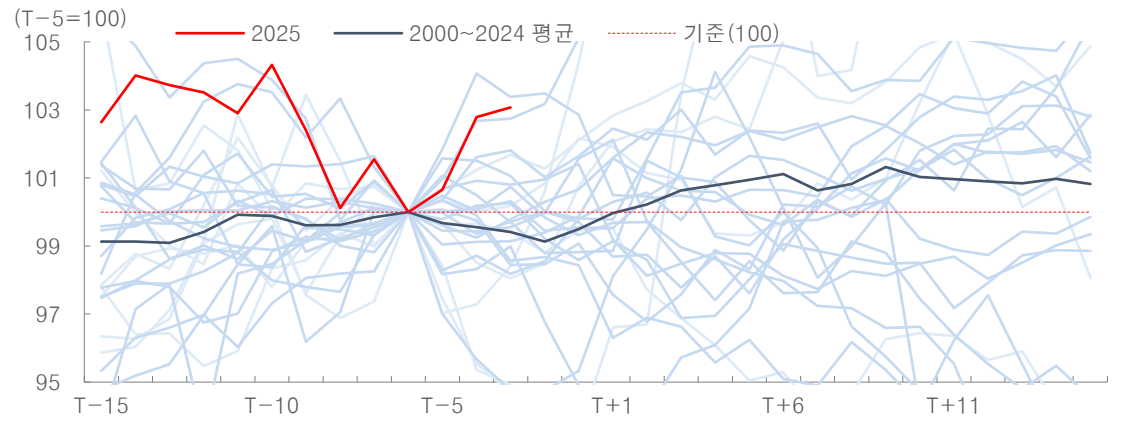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연초 2주동안 외국인 순매수 강화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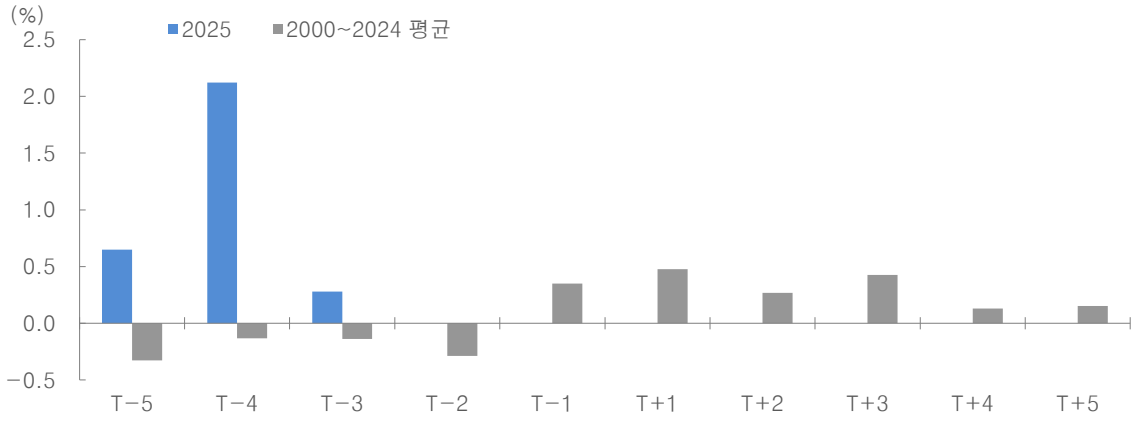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산타랠리 기간 코스피 평균 상승률은 0.2%, 2000년 이후 25개년 중 13번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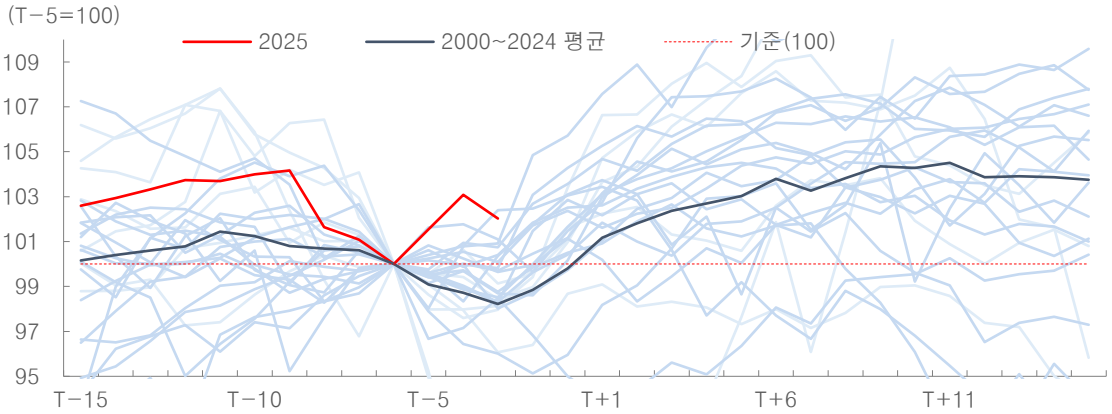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평년 대비 순조롭게 산타랠리에 돌입한 코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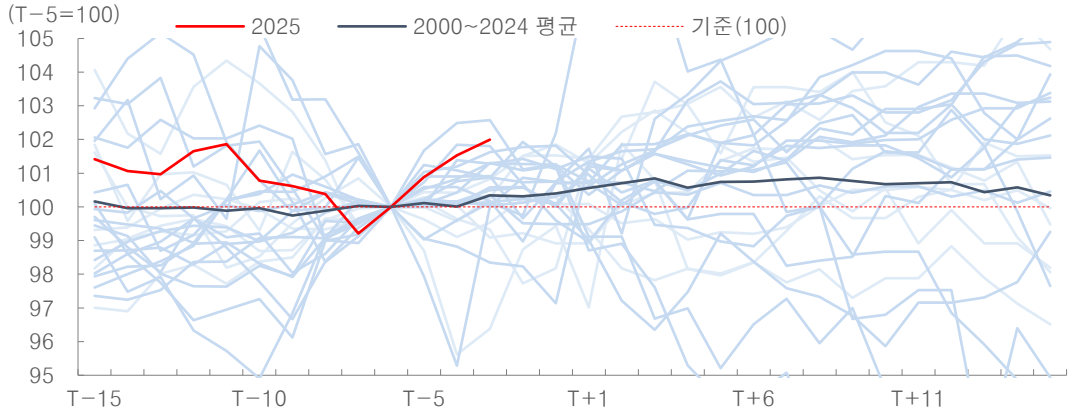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산타랠리는 코스닥에서 더 뚜렷한 경향성, 25개년 중 19번 상승, 평균 상승률은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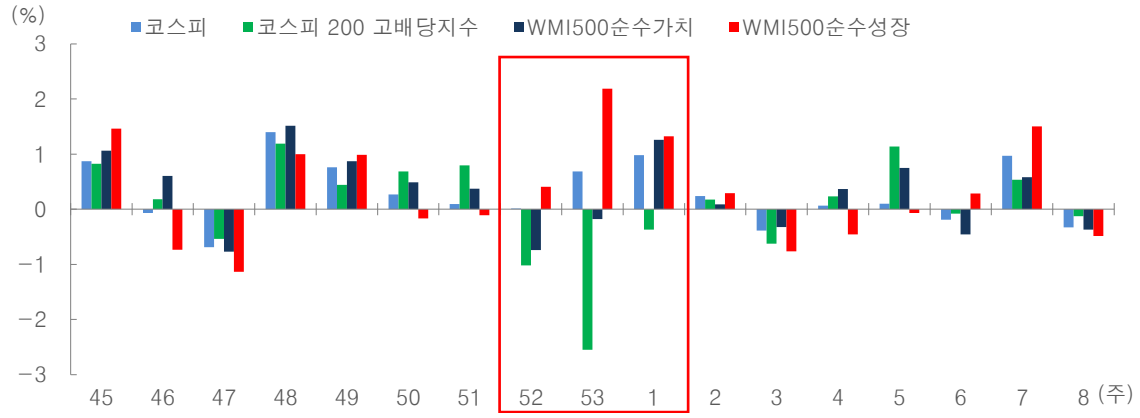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S&P500의 산타랠리 통계는 25개년 중 18번 상승, 평균 상승률은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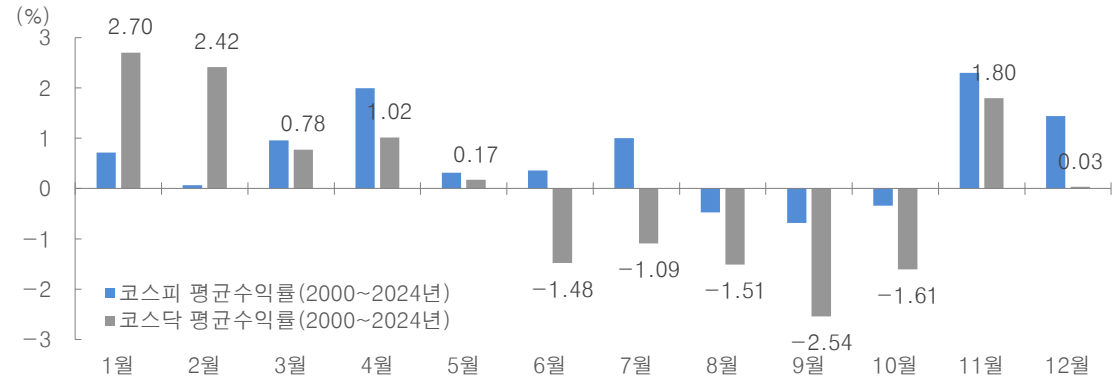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2000년 이후 연말연시 스타일별 평균 수익률, 배당락 이후 성장주 로테이션 패턴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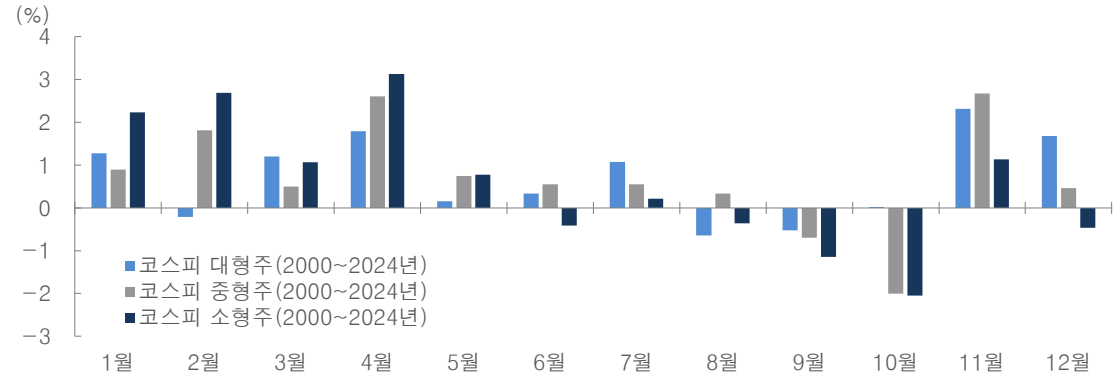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1, 2월 연초효과, 코스피 대비 코스닥 아웃퍼폼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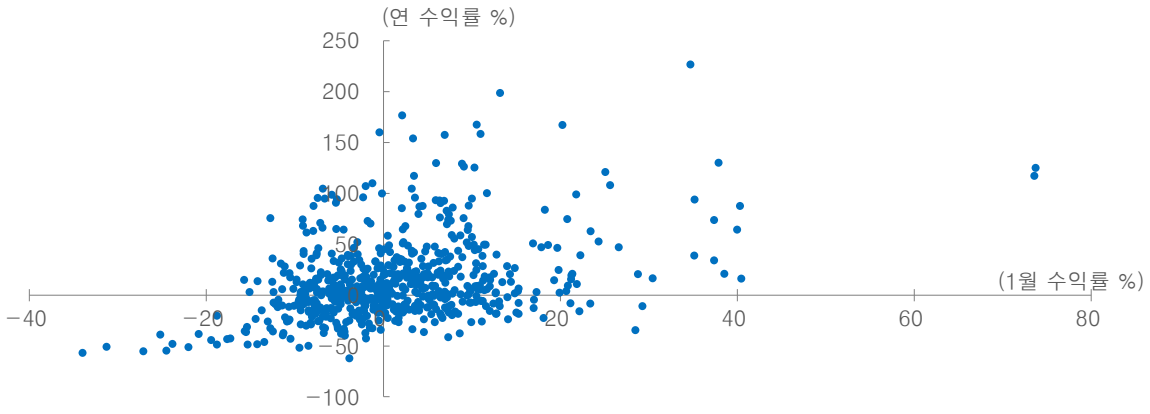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코스피 안에서도 연초에는 대형주 대비 소형주 성과가 더 높은 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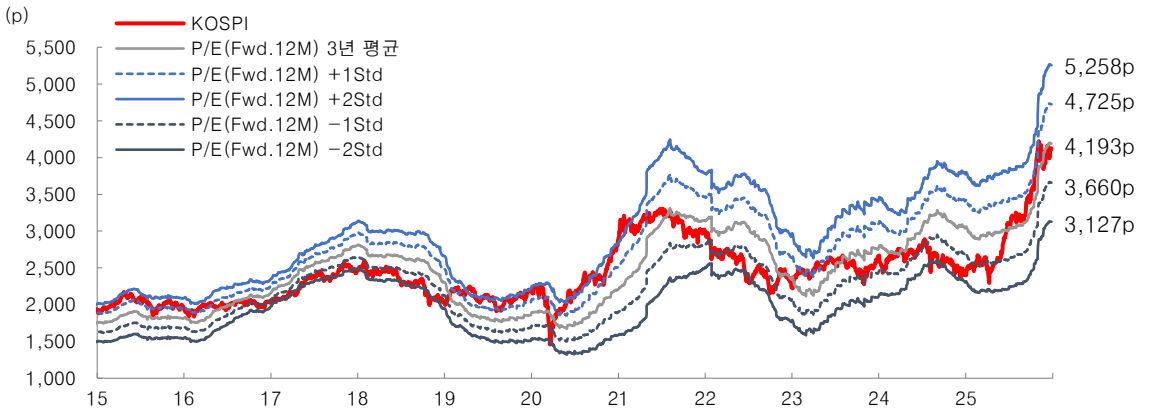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1월에 주도주가 결정되는 경향, 업종별 1월 수익률과 연 수익률의 상관관계 0.38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코스피 현재 밸류에이션은 3년 평균 수준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Agentic AI vs Physical AI 개요**

분류 항목	Agentic AI	Physical AI
작동 형태/구현	- LLM 기반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API, 브라우저, 클라우드(SAAS) - 엔터프라이즈형 플랫폼 - 실시간 추론 기술 /: LLM (GPT-4, Claude 등 기반)	- 하드웨어: 로봇, 산업용 로봇팔, 자율주행차, 드론 등 - 온디바이스 AI, 내장형 AI 반도체 - 센서(카메라, LiDAR, IMU), 환경 인식 및 자율 동작 - 액추에이터, 실시간 모터 정밀 제어 등
적용 분야/시장	- 소프트웨어 개발 -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CRM, 세일즈, CS) - 마케팅/콘텐츠 제작 - 데이터 분석·리서치·사내 지식 관리 - 백오피스(재무·HR·법무) 자동화 등	- 제조업 공장 내 산업용 로봇팔, 협동로봇 등 - 스마트 물류창고, e-커머스 라스트 마일 - 휴머노이드, 의료 로봇, 서비스 로봇 - 농업, 건설, 위험 환경 작업 등
생산성 기여 방식	- 반복적 지식 작업 자동화 (자료 조사, 초안 작성, 코드 리팩토링 등) - 병렬 에이전트 동시 다수 태스크 처리 - 24/7 백그라운드 태스크 수행	- 반복적 물리 작업 자동화 - 24/7 설비 가동률 및 처리량 증가 - 정확도 향상, 불량율 감소 - 인간의 고강도·위험 작업 대체
주요 제품/서비스	- LLM 에이전트 툴 (OpenAI AgentKit, Claude MCP) - 엔터프라이즈용 에이전트 (마이크로소프트 Copilot , 세일즈포스 Agentforce 등) - 자율 코드 생성 (GitHub Copilot Agent , OpenAI CodeEX 등)	- 산업용 로봇 (NVIDIA Isaac, Intuitive da Vinci) - 물류/데이터센터 자동화 로봇 (Amazon Sparrow, NAVER 가로/세로) - 자율주행차 (테슬라 FSD, 구글 Waymo) - 휴머노이드 (테슬라 Optimus, 보스턴다이나믹스 Atlas)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정해창,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